

AI 시대의 창조와 책임,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네포럼, 'AI와 기독교 문화' 주제로 열려

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과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공동주최한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네포럼'이 'LIGHT UP [AI와 기독교 문화]: AI-환경 속 기독교 문화 창조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오후 필름포럼 2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성경 AI 애니메이션 상영, 백광훈 원장의 인사말,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인사말에서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기독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고민과 방향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경래 교수(장신대)가 'AI, 창작자인가 도구인가?: AI시대, 창조와 주체성의 의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이제 몇 번의 명령만으로도 지브리풍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할까? AI인가, 인간인가, 혹은 AI를 만든 개발자인가? 일본 문부과학성은 '화풍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여전히 이어진다. 인간이 직접 기획하고 세부를 조정하며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 반면, 아무런 구상 없이 단순히 '그림 하나 그려줘라'고 명령해 생성된 결과물은 누구의 창작물도 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창작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이 논의의 근저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질문이 놓여 있다. 인간은 단순한 기술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본질을 이어받았다. 인간의 창조 행위는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감정과 사상, 고뇌와 기쁨을 표현하는 인격적 활동이다. 만

면 AI는 이러한 내면의 경험이나 의도를 갖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인간의 패턴을 학습해 조합한 결과일 뿐, 그 안에는 '왜'라는 동기나 '무엇을 전하려는가'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인간의 창조는 관계와 의미를 담은 행위이며, 이는 단순히 계산의 결과로는 대체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도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결과물을 통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인간이 감당해야 한다. 가짜 뉴스나 허위 이미지, 혹은 누군가를 해치는 콘텐츠가 AI로 생성되더라도, 그 책임은 창작을 지시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안에 담길 도덕과 진리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창조는 결국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그 물음 앞에 인간은 여전히 창조의 주제로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지혜 책임연구원(문화선교연구원)이 'AI 콘텐츠 시대, 기독교 문화 창조와 의미와 방향'을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는 AI 덕분에 이제 손으로 무언가를 길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로 설명하고, 짧게 지시를 던지고, 몇 번만 수정 요청을 하면 그럴듯한 그림과 영상, 음악, 심지어 예제 영상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기계가 쏟아내는 결과물들을 어디까지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작품의 주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문화라는 것은 원래 시대마다 정의가 달라져 왔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 개념도 계속 확장돼



'제2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네포럼'이 'LIGHT UP [AI와 기독교 문화]: AI-환경 속 기독교 문화 창조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승연 기자



장신대 김경래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실 센터장이 발제하는 모습. ©최승연 기자

왔다"며 "지금 우리가 AI 창작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결국 '창조성은 인간에게만 있는가?'라는 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AI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조합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세계와의 관계 속에 놓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 있다. 기계는 '만들 수' 있지만 인간만이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의 문화 참여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는 수준을 넘어서 '의미'를 누가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야 한다. 지금 AI가 만드는 콘텐츠는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며, 너무 쉽게 복제된다. 그 과정에서 맥락이 떨어져 나가고, 출처가 흐릿해지고, 진짜와 가짜가 섞이

며, 조화 수가 곧 신뢰가 되는 이상한 생태계가 생기기 쉽다. 할루시네이션, 조작된 이미지, 감정을 자극하는 짧은 영상들이 넘쳐나면 결국 사회는 '진실이 있기는 한가'라는 피로감으로 흘려간다.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적 문화 창조가 할 일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인간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로 세워야 한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왜 이게 만들어졌고, 어떤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고,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사실(fact)만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진리를 좇아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허구가 때로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AI가 거짓을 양산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사실 확인만 하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질문은 '이 콘텐츠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드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는 기독교적 리믹스가 중요한 문화 방식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디지털 문화는 원본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기존의 자료를 잘라 붙이고, 재배열하고, 다른 맥락에 옮겨놓으면서 새 의미를 만든다. 그렇다면 그 작업 안에 의도와 신학과 사랑을 접어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AI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것을 다시 엮어 공동체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는 구조다. 이 과정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가 엮인 네트워크 작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AI는 도구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거짓 이미지를 유포할지, 약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다시 엮을지, 혐오를 키울지, 화해를 준비할지는 결국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AI가 무한히 생성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유한한 시간 안에서 더 선별적으로, 더 응답적으로, 더 하나님을 닮은 창조를 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이 문화의 주제로 남는 길이다"고 했다.

이어 조성실 센터장(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이 'AI 콘텐츠 사용, 활용일까 오용일까?: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조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창작을 대신하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공동 창작자로 참여해 예술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해석의 책임'이다. AI가 이미지를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를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인간은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냄새, 촉감, 기억 같은 공감각적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만 작동하기에, 냄새를 '분자 수치'로는 분석할 수 있어도 그 냄새가 주는 추억이나 생명의 감각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AI는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뿐, 그 안의 의미를 '응답'할 수는 없다. 해석이란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AI는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존재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AI의 창작 시대는 저작권과 정체성, 노동의 문제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AI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을 학습해 배우의 대역을 만들고,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해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결국 AI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창조적 권리와 존엄을 보호할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통제할 새로운 도덕 체계다. '책임 있는 AI'란 인공지능 자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 공동체의 태도를 가리킨다. 개발자, 투자자, 사용자,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니퍼 로페즈가 참여한 '젠AI' 캠페인처럼 투명한 동의, 감시 체계, 윤리적 제한이 결합될 때 비로소 기술은 인간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응답할 것인가?'이다. 인간의 책임 있는 해석과 참여, 그리고 공동체적 응답이 있을 때 비로소 기술은 문화가 되고, AI는 인간의 창조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WEA 서울총회, 새 리더십 기대 안고 마무리

요가라자 신임 의장

"서울선언, 복음주의 방향 제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지난 30일 회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주최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엔 새롭게 구성된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한국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1명의 국제이사회 신임 이사들이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6년 동안 활동하며 WEA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WEA 측은 "이번 리더십 교체는 서구 중심에서 남반구·아시아·중동 중심으로 복음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복음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

가했다.

갓프리 요가라자 신임 의장은 "한국 교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며 "(조직위) 한국 신학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선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선언이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보트루스 만수르 WEA 신임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복음의 연합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203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선언 신학위원장 오덕규 총장(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은 "이번 서울선언은 하나님에 한국에 주신 기회이며,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성



갓프리 요가라자 신임 의장은 "한국교회에 감사하며, 서울선언이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보트루스 만수르 WEA 신임 사무총장은 "203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최승연 기자

경 말씀에 근거한 문서"라며 "나태, 조력 사, 차별금지법, 동성애, 종교의 자유, 복

한 인권 문제까지 포괄해 복음주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착공)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전자상가 철거중)

GRAND OPEN
선착순 분양

호창공원앞역

용산역

1 용산역
4 신용산역
GTX-B (배정)
신대한천역 (배정)
KTX
경의중앙선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러 / 25cm 더 높은
충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이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신 기회 없습니다

분양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

호남신대, 제1회 설교페스티벌 개최… 예비 목회자 설교 역량 발휘

개교 70주년 기념, '설교의 본질과 방법' 배우는 뜻깊은 시간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황민호)가 최근 예음홀에서 개교 70주년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제1회 설교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 목회자들의 설교 역량을 강화하고, 말씀 선포의 역성을 복돋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설교페스티벌은 본선에 오른 8명의 학생들이 설교를 통해 그동안의 훈련과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심사는 황민호 총장(조직신학), 최흥진 명예총장(신약학), 서재덕 교수(구약학), 채정명 교수(예

배설교학)와 외부 심사위원인 강주성 목사(서석교회 담임)가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는 성경해석 및 신학적 깊이, 설교 구성과 적용의 완성도, 전달력과 영상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 최우수상은 김태민(신대원 2년) 학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박정화(신대원 2년), 강하형(신대원 3년), 장려상은 강선결, 권찬송, 김세중, 정반석, 백이삭(이상 신대원 3년) 학생들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호남신학대학교 제1회 설교페스티벌 참석자 기념 사진. ©호남신대

각각 전달됐다. 황민호 총장은 축사에서 “설교는 목회자에게 기쁨이자 부담”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영적 책임

속에서도 설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큰 은혜와 사명”이라며 “이번 설교페스티벌을 통해 설교의 본질과 방법을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행사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주성 목사(서석교회)는 격려사에서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며 “준비된 설교자로서 호남신학대 출신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설교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호남신학대학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설교페스티벌을 개최해 예비 목회자들의 설교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 교회와의 소통을 넓혀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이화여대 대학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 성료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
역사의 의미 되새기고, 건강한 신앙공동체 다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담임 장윤재 목사, 기독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창립 90주년을 맞아 중강당에서 기념 주일예배와 다양한 행사를 열며, 한국 최초의 대학교회로서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최근 밝혔다.

이화여대 대학교회는 1935년 9월 29일,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가 함께 예배드리며 '협성교회(協成教會, Union Church)'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 최초의 대학교회로, 9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예배가 열렸던 '에머슨 홀(현 중강당)'은 1만 달러를 기증한 에드윈 S. 에머슨의 기념으로 건립된 장소로,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교회를 다녔다. 에머슨 홀은 이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교내 주요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려왔다.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에서 장윤재 목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이화의 건물들이 단순한 석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며, "대학교회는 지성과 영성이 소통하는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난

90년 동안 묵묵히 걸어왔다"고 했다.

예배 후에는 에머슨 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무대에는 한용운의 「추야몽」, 윤동주의 「서시」 등이 가곡으로 울려 퍼졌다. 장윤재 목사는 「동주, 사랑의 전당」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더하며, 교인들은 '나의 대학교회 이야기' 시간을 통해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후 2011년부터 이화학당의 이사장직을 맡아 이화를 섬긴 장명수 이사장에게 퇴임 기념 꽃다발이 증정됐다. 행사에는



장명수 이사장에게 퇴임 기념 꽃다발 증정식(왼쪽 사진) 및 기념 사진(오른쪽 사진). ©이화여대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신임 이사장, 이향숙 총장 등 대학교회 교인들이 함께하며, 에머슨 홀 헌관 제막식을 통해 대학교회 100주년을 향한 다짐의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는 민족의 고난 속에서 이화인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대학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역사 편찬, 선교사업, 기금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개최

(재)아가페(이사장 김삼한 목사)가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연다. 행사는 서울 강동구 글로벌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진행된다.

김삼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앞



두고 "소망교도소는 교계가 하나 되어 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운 결실"이라며 "지난 15년 동안 수용자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 교계가 250억 원 이상을 모금해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수용자를 '변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간 존중의 교정 철학을 실천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망교도소 15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신앙 기반 민영교정 모델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 선교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미국 뉴욕시립대 존 제이 형사사범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이어 브라질의 APAC 교정 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지 안토니오 페레이라, 미국의 사회적 목적 교정기관 대표 브라이언 코엔, 세계 최대 교정선교 단체 PF의 앤드류 콜리 대표(영국) 등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밖에도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 각국의 석학과 교정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연신원 총동문회 창립 30주년 맞아 정기총회 갖는다

11월 3일 오전 11시 연세대 언더우드신학관에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김대성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3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신학관에서 제30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연세신학 30년,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향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동문 간의 신앙적 교류를 강화하고, 신학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재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동문회는 "30년간 이어온 연세신학의 신앙과 학문의 전통을 계승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다음 세대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상임부회장 김유민 목사가 사회를 보는 1부 예배에선 엄신형 목사(증경회장)가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동문회는 "예배에서는 연세신학의 영성

을 새롭게 조명하며, 교단과 교회의 경계를 넘어 동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학의 현장 속 복음 실천의 사명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동문회장 김대성 목사의 사회를 진행되는 2부 정기총회에선 사업과 감사 및 결산 보고를 비롯해 신임 임원 인준 및 안건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동문회는 "이번 총회에서는 제30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동문회의 발전 방향과 후배 사역자 지원, 한국교회 연합 사역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장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응 포럼'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이사장 복영규)이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목회와 돌봄선교 실천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중심으로 교회, 복지,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을 논의하



고 기장교회의 공공신학적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복영규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훈삼 기장총회 총무의 격려사로 시작된다. 이어 한상일 목사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사)돌봄과 미래 금융의 이사장이 '돌봄통합지원법과 사회서비스 미래 전망'을 주제로 돌봄제도의 변화와 과제를 조망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현일 목사가 '돌봄통합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통해 공공 돌봄체계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짚는다. 세 번째로 기독교도시민선교협의회회장 우성구 목사는 '돌봄통합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현장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곡사랑교회 박종호 목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신혜정 관장,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회) 이호영 사무총장이 참여해 교단과 지역 현장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노형구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우리 집 아이들도 미전도 종족? 가정예배가 신앙 전수의 핵심”

가정에서 시작되는 신앙,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릇터기로 세우다
주일학교 1~2시간으로는 다음세대 신앙 못 지켜… 가정예배 살아나야

◆PCCE, 가정예배와 세대 통합예배로
신앙전수 지원

저녁 8시, 남가주의 한 가정 거실.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고 부모와 함께 모였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10분 남짓,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 짧지만, 가정예배의 현장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산하 PCCE(퍼시픽교육문화센터)는 바로 이런 순간들을 확장하고자 설립됐다.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로 전파하며,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목표로 한다.

PCCE 디렉터 최윤정 교수(World Mission University 부총장)는 “주일학교 시간만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기 역부족이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세대, 새로운 ‘미전도 종족’

위도 10~40도 미전도 종족 구원을 위한 10/40 원도우 운동을 전개한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선교의 개념이 이제 단순한 ‘지역 중심’이 아니라 ‘연령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즉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아이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과 우리 아이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부모와 가정이 수직적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뜻한다.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다.

북미 기독교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다.

“가정에서 자녀와 어떤 신앙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3%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신앙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다.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극히 소수였다.

◆가정예배,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PCCE 행정, 연구 담당 김지용(Justin Kim) 전도사는 부모들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면한다. 찬양이 없어도, 특별한 예배 형식이 없어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충분한 예배가 된다고 말한다.

우선, 10~15분, 짧게라도 시작하라. 핵심은 ‘예배’라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익숙한 분위기, 신학적인 준비가 없어도 괜찮다.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몇 시간씩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녀가 어려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면 성경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말씀 시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 구성원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시간을 정해두고 30분 전부터 가족 구성원에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단위로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가족 중 누군가 함께하지 못해도 나머지 가족은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하지 못한 구성원을 위해 기도한다. 외출 중이거나 차 안에 있다면, 짧게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한, PCCE 웹사이트에서는 매주 두란노 생명의삶을 바탕으로 ‘가정예배 인도



PCCE(퍼시픽교육문화센터) 행정 및 연구 담당 김지용(Justin Kim) 전도사와 PCCE 디렉터 최윤정 교수(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주디 한 기자

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열쇠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때, 아이들의 신앙도 살아난다. PCCE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모 교육을 제공하며, 한인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왜 가정예배인가

미국 교회를 비롯해 미국 내 한인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맡겨왔다. 하지만 주 1~2시간의 주일학교 시간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깊게 심어주는 어렵다.

PCCE는 “주일학교만으로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모 신앙이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자녀는 신앙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정예배는 이런 틈을 메우는 도구다. 일상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목격하며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신앙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통합예배에서는 자녀를 예배의 참여자로 세운다. 찬양 인도자나 중보기도자로 섬기며,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온라인 부모 교육과 Parent Association

PCCE는 부모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한다. 올해는 4주에서 6주 과정으로 부모관계 코칭, 부모 코칭 세미나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PCCE는 “내년에는 Parent Association을 만들어, 공통의 신앙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모아 가정 예배와 부모 코칭, 평신도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정예배 공모전, 다양한 형식 권장

PCCE는 가정예배 운동의 일환으로, 미주복음방송과 함께 가정예배 공모전도 진행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각 가정이 드리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 영상을 취합, 공유하며, 부담 없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권장했다.

“주일 예배처럼 엄격한 순서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모전에는 각 가정의 개성과 상황이 담긴 예배들이 소개됐다.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며 참석자가 아닌 진행자로 참여하는 모습, 할머니할

아버지부터 손주 세대까지 삼대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다. 어떤 가족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줌(Zoom)으로 예배를 이어가며 신앙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최윤정 교수는 소통, 언어, 신앙의 단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한 이민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가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정예배와 세대 통합예배를 통한 신앙전수는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 PCCE는 이러한 경험을 실천 가능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풀어, 한인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릇터기로 세우도록 돕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녀와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신앙 전수의 시작입니다.”

한편, PCCE 자문위원으로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학), 감기섭 목사(LA 사랑의교회 담임)가 참여하고, 이사장으로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섬기고 있다. 협력 기관으로는 남가주어린이전도협회, CGN America, 두란노서원,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미주복음방송 등이 있다.

주디 한 기자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회 성회 “코람데오 신앙으로 서자”

하와이 로렘교회

이성현 목사 초청 “위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체험해야”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서부지방회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연합성회가 10월 25일 저녁, 미라클 LA교회(신병욱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성회는 ‘Here I Stand’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하와이 로렘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부지방 여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현 목사는 예배 초반,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감동을 전하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느껴진다.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설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왜 그토록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전 교단을 떠나왔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함이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며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말씀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은 코람데오의 신앙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했듯,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이성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신다”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이 무너지고, 그분의 소명에 반응하게 된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소명을 따라 사는 신앙이다. 예언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우리 또한 교단의 혼란과 세상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와이 로렘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간증도 전했다. “처음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컸다. 불안과 초조함도 많았지만, 아무런 어는 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그 순간 눈물이 터졌고, 하나님이 내 삶

의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교단의 분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중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 집사는 앉아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고쳐서, 다듬어서, 다시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데 능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나누며, “저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성회는 말씀 후 이어진 뜨거운 합심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됐다.

토마스 맹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2025년 시애틀형제교회 임직예배, 총 31명 직분자 세워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 26일, 2025년도 임직예배를 드리고 장로 6명, 권사 7명, 안수집사 18명 등 총 31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임직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약했다.

권준牧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믿음과 분별력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중보의 영성과 긍휼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책 없는 자의 하나님 나라(마 20: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권 목사 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직분은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공로주의’”라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내세우는 순간 은혜를 잃게 되고 교회는 분열된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

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직자 대표로 다짐을 전한 김권종 장로는 “오늘 임직받은 모든 임직자들은 지금껏 배우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봉사자와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모든 임직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임직자들을 향한 축복과 권면을 전한 하해현 은퇴장로는 “맡겨진 일에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충성하되,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감대를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특새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마지막날인 25일 아멘 찬양대가 특별합창을 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넓혀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며 “언제나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하

고,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소통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

을 우선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민선 기자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홀리포니아 퍼레이드’로 복음의 빛을 도시에 전하다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행사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마운틴뷰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 전도행사 ‘홀리포니아(Holifornia) 퍼레이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교회가 올해 하나님께 받은 비전 “God does”를 실천하기 위한 복음 프로젝트로, 교회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지역을 품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선 영적 축제였다.

행사는 새누리교회 본당에서의 기도회로 시작되었으며,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을 모은 뒤 마운틴뷰 다운타운까지 찬양하며 행진했다. 특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영어권 공동체(EM) 성도들까지 모든 세대 30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은 세대를 아우르는 믿음의 행진이 되었다. 각 구간마다 멈춰 ‘땅 밟기 기도’를 드리며 지역 상권과 가정, 학교, 그리고 도시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다.

다운타운에 도착한 후에는 스킷 드라마, 바다위험, 복음 찬양, 복음 메시지가 이어졌고 도심 한가운데가 예배의 공간

으로 변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찬양에 귀를 기울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함께 손을 들고 찬양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찬양으로 전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며 “도시 한복판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경일 담임목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숨기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새누리교회에 복음을 드러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며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위해 거리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선교사로 서서 복음의 불을 지역사회에 밝히는 공동체로 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홀리포니아(Holifornia)’는 ‘Holy(거룩

함)’과 ‘California(캘리포니아)’의 합성어로, 캘리포니아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누리교회는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교회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성도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숨기지 않고 실천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다. 이번 ‘홀리포니아 퍼레이드’를 통해 새누리교회는 단지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다.

손경일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도심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캘리포니아, 복음으로 변화되는 도시를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는 마운틴뷰의 거리를 복음의 찬양과 기도로 물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한 시간이 되었다. 김대원 기자

오스틴 주님의교회, ‘Love 사모 수련회’ 은혜롭게 마무리

“눈물과 위로 속에 회복·갱신·연합을 경험한 시간”

오스틴 주님의교회(담임목사 허성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텍사스 린데일에 위치한 JAMA Global Campus에서 ‘Love 사모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미주 15개 주에서 35명의 담임목회자 사모들이 참여해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는 조별 나눔과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한 허성현 목사는 열왕기상 19장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며 “영적·육적으로 지쳐 있는 목회자 사모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복(Restoration), 갱신(Renew), 연합(Reunion)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B 사모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섬김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Y 사모는 “비슷한 상황 속 사모님들과의 교제와 나눔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L 사모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를 총괄한 허양희 사모와 오스틴 주님의교회 봉사자 13명은 지난 6개월간 기도로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섬겼다. 봉



사모 수련회에 참석한 사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사자들은 풍성한 식사와 간식, 선물을 마련했고, 프로그램 전반을 헌신으로 지원했다. 특히 봉사자들이 특송으로 부른 ‘사람을 살리는 노래’는 참가자와 봉사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됐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2025 코랄 페스티벌 개최

아프리카 차드 지역 ‘우물 파기’ 프로젝트 후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가 주최하는 ‘2025 코랄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알바인 소재 베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프리카 차드 우물 파기 후원’을 주제로, 물 부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차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뜻 깊은 나눔의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행사에서 모금된 후원금의 일부는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의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전달되며, 깨끗한 식수

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우물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대에는 가수 늘 노래 합창단, 남가주 경신 코랄, 남가주 사랑의 교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미주 여성 코랄, 베델 그레이스 콰이어, 정신 동문 코러스, OC 장로 성가단 등 다양한 합창단이 참여해 풍성한 하모니를 선보인다. 또 더 원 오케스트라(The One Orchestra)가 게스트로 참여하여, 학생 연주자들의 무대를 통해 행사에 나눔과 감동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1964년 작곡가 고(故) 권길상 선생에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회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의해 창단된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는 반세기 넘게 남가주 지역 한인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협회는 매년 신년 음악회, 신인 음악회, 창작 가곡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해왔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절반 지나… 신학적 조명 및 미래 모색”

한국군선교신학회, 제25회 군선교신학심포지엄(上)

한국교회 다음세대 선교의 최전선이자, 청년 복음화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군선교 현장을 이끌어 온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2021~2030)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의 전환, 병력 구조 재편, 첨단 국방 과학 기술 도입, 복무 환경 및 병영 문화의 변화, 군종목사와 군선교 사역자의 구조적 제약 등의 변화 가운데 비전2030실천운동도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과 전략으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과거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비전2040실천운동, 비전2050실천운동에 대한 구상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를 다룬 한국군선교신학회의 군선교신학심포지엄에서는 어느 해보다 군선교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분석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MEAK)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군선교신학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회장 박요셉 목사)가 10월 31일 서울 강동 명성교회 글로벌아 커뮤니티센터(GCC) 2층 은파홀에서 제25회 2025 군선교신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제2회 육군 군종목사 역량강화 세미나'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져, 예년보다 현역 군종목사가 많이 참석했으며, 예비역 군종목사, 군선교사, 예비역 기독교 장성, 군선교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1부 경건회는 한국군종목사단장 윤창길 군종목사의 인도로,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 문호빈 군종목사의 기도, 육군군종목사단장 김택조 군종목사의 성경봉독 후, 군선교신학회장 박요셉 목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5:35~40)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를 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생을 받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 정비호 군종목사의 축도에 이어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인사 말씀에서 "사실 군선교는 '현장'과 '현장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이론 및 앞으로의 군선교 방향 정립'의 두 축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며 "비전2030실천운동이 중반을 달려가면서 잘 평가되고, 앞으로 힘을 얻어 잘 마무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군선교연합회 총무 양재준 목사의 광고와 군선교신학회 주관 서평대회 결과보고 후 시상식이 진행됐다. 서평대회 결과 △대상=박종민 강도사 △특별상=강필규 군종목사 △우수상=이용재 목사 △장려상=조재선 목사, 차명호 목사가 수상했다. 2부 군선교신학심포지엄은 이석근 군종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의 인도로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이규철 목



제25회 군선교신학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회장 박요셉 목사



기조강연자 이규철 목사



첫 발제자 전요섭 교수

사(안동성결교회 담임)가 기조강연으로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전요섭 교수(성결대 교양대 학장)가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위전선 군종목사(백두산군인교회 담임)'가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논란은 김영호 군종목사(문무대군인교회 담임), 김상만 교수(치유목회연구원)가 맡았다.

◇이규철 목사, 한국 군선교의 '총요소 생산성' 극대화 방안 제언
이규철 목사는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

사와 제언'에서 "국군 창설과 함께 평신도 기독교전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군선교 77년의 축적의 역사는 군종목사, 기독교전우회(MCF), 군선교사, 군선교연합회, 한국교회의 총원이 함께 농축되어 한국교회의 선교 자산을 형성한다"며 "특히 한국 군선교는 10년 주기로 '전신신자화운동-신앙전력화-군복음화운동-비전2020실천운동-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현재진행형으로,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동역 속에 주창되고 가속화되는 특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총요소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군선교연합회는 △사명제

무장운동 강화 △부흥 열망 △설교 역량 강화 △복음의 접촉점 강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 △포스트 비전2030실천운동 준비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특히 '복음의 접촉점 강화'를 위해 "MZ세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군 내 복음의 증거자들이 장병들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배, 교육, 개인 면담을 통해 장병들과 깊은 인격적 유대를 형성하고, 복음으로의 '개인적 신앙 결심'을 적극 권면하는 지혜와 열정을 강화해 주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매년 기독교 장병 10만 명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진력하도록 독려하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 운동의 파송 체계를 재구성하여 군종목사들의 과중한 파송 업무를 감경하고 복음전도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

◇전요섭 교수 "군종목사, 종교의례 넘어 '존재 자체'로 장병 돌봄"

전요섭 교수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발제에서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의 본질을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와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이라는 이중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소개하며 "오늘날 군종목사는 종교의례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돌봄과 치유를 제공하는 '존재의 사역'을 하

는 것이 군이 요청하는 것이고 군 목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먼저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예배, 성례, 설교, 성경공부, 기도, 전도, 제자훈련, 심방, 상담, 행정, 예식 등 목회 돌봄을 담당하는 기능 및 직무적 존재이다. 또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과 항상 함께 존재함으로써 위로와 신뢰, 심리적·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실존적 돌봄의 사역자"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더 나아가 "군종목사의 존재는 단지 예배당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성직자라는 의미를 넘어, 전투 상황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인간 존엄과 하나님의 동행은 군인들에게 체현시키는 영적 표지라 할 수 있다"며 "군종목사의 가시성은 부대 공동체의 통합성과 전투력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존재론적 사역'의 본보기로, 미국에서는 군종목사가 장병들과 일상 공간에서 상시 동행하며, 이를 통해 부대 전체의 사기와 연대감을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

전요섭 교수는 "따라서 군종목사가 '사역의 존재'로서 목사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 목표이며, 동시에 '존재의 사역'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목사는 논찬에서 "존재의 사역"은 신뢰가 낮아지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장병들의 영적 피난처이자 복음 확산의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며 "군종목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 속에서 이 두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이지희 기자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수원 열린교회 창립 15주년 기념공연 성료

기독교 예술인들의 클래식 향연, 성도들에게 감동 선사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대표 김혜영, 이하 킹스보이스)가 경기도 수원 열린교회(최민수 목사)의 창립 15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문화예술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은혜'(Grace of Heaven)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총연출 도성민 목사의 사회로, 소프라노 김혜영 대표, 피아니스트 김윤경, 바이올리니스트 한송이, 바리톤 권용만, 스페인 아티스트(무용수) 최민영, CCM보컬 권세인 등이 출연해 성악과 클

래식 연주,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진 풍성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피아니스트 김윤경의 독주 공연으로 첫 막이 올랐고, 소프라노 김혜영 대표가 '주기도문', '은혜'를 찬양하며 감동을 더했다. 최민영은 스페인 전통춤 플라멩코로 '여인의 기도', '축제'를 공연하여 무대에 생동감을 더했다. 바리톤 권용만은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Les Toreadors)와 찬송가 '그 크신 하

나님의 사랑'을, CCM 보컬리스트인 권세인은 'You Raise Me Up'과 'What A Wonderful World'를 불러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한송이가 '사랑의 인사', '타이스의 명상곡'을 섬세한 선율로 연주해 감동을 전하였고, 소프라노 김혜영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축복하노라'로 성도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전했다. 대미는 권용만의 '마이 웨이', '주의 은혜라'가 장식하며 큰 호응 속에 음악회가 마무리됐다. 열린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성도는 "처음엔 교회에서 클래식 공연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놀라웠다"며 "큰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성악가, 무용가, CCM 보컬리스트 등이 교회 성도들과 일반인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열고 있다. 올해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빈민 지역 최초 음악회를 열어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단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킹스보이스오페라컴퍼니

초연경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th+1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뚝을 겁니다.

21번째의 도전

시작합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완전 자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항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향상

인도, 기독교인 3명 체포… 대법원 ‘개종금지법 남용’ 비판 직후 발생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3명이 힌두교 신자들을 급전적 유혹 등으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인도의 논란이 많은 ‘개종 금지법(Anti-Conversion Law)’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인도 대법원이 최근 해당 주 정부가 이 법을 남용해 종교 소수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현지 언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ress Trust of India)에 따르면 경찰은 바렐리(Bareilly) 지역에서 수밋 마시(Sumit Masey) 목사, 아밋 마시(Amit Masey, 일명 악사이 마시 Akshay Masey), 그리고 사리타(Sarita)로 알려진 여성을 체포했다. 또 다른 피의자 사타팔(Satyapal)은 현재 도주 중

이다.

이들은 2021년에 제정된 ‘우타르프라데시 종교의 불법 개종 금지법(Uttar Pradesh 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에 따라 기소됐다. 이 법은 폭력, 사기, 유혹 등으로 인한 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사브 타쿠르(Rishabh Thakur)와 니르도시 라토레(Nirdosh Rathore)라는 주민들이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바렐리의 슈퍼시티(Super City) 지역에 집을 임대하고, 기도 모임과 종교행사로 위장해 힌두교 여성과 아동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가촉천민(달리트, Dalit)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치유’를 약속하며 개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성과 아

동이 실제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감정적·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포 3일 전, 인도 대법원은 같은 법에 근거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형사 고발을 기각했다. 더 힌두(The Hindu)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들이 “무고한 개인들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독(travesty of justice)”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고발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3자가 제기한 것이라며 절차적 결함과 직접 증거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pixabay

또한 법원은 개종 전후로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개종 60일 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거친 뒤에만 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종 후에도 개종자 신상(주소, 개종 장소 등)을 공개하도록

정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도 내에서 기독교인 박해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통치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약 5%에 불과하며,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1% 미만이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의 ‘월드워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중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 내 최소 12개 주에서 반(反)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경 기자

사마리아인의 지갑, 새 767 화물기로 가자지구에 47톤 구호물자 공수

미 북음주의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새로 도입한 767 화물기를 이용해 약 10만5천 파운드(약 47톤)에 달하는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공수했다. 이번 구호품에는 지난 2년간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위한 식량, 담요, 태양광 랜턴 등이 포함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이번 비행이 새 항공기의 첫 공식 임무였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편에는 29만여 개의 고영양 보충식 식품팩과 수천 개의 태양광 조명기기, 담요가 탑재됐으며, 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긴급 구호용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사마리아인의 지갑 회장 겸 CEO는 “이 비행기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며 “가자의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잊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필요하다면 긴급 야전병원을 추가로 파견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신실 구호단체 ‘가자 인도주의 재단(Gaza Humanitarian Foundation)’과 협력해 구호품과 의료진을 분쟁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마나 뉴트리션(MANA Nutrition)’에서 생산된 고칼로리 땅콩기반 영양식을 대량으로 공수해 영양실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223톤 이상의 보충 식량을 전달했으며, 총 100만 개 이상의 식량 배급을 실시했다. 의료팀은 지금까지 1,7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을 운영하는 직원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내리고 있다. ©Samaritan's Purse

지난 10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공항에서는 사마리아인의 지갑 직원들이 13번째 가자 구호 비행의 출발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번 구호품 배분은 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지정된 구호 거점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의료진이 직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의 인도적 지원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양측 민간인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확대됐다.

에드워드 그라함(Edward Graham)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자는 여전히 인도주의적 대응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며 “우리 직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수는 새로 도입된 767 항공기의 운송을 통해 물류 역량을 확대한 첫 사례다. 이 항공기는 기존의 757, DC-8 화물기와 함께 사마리아인의 지

갑의 구호 비행단에 합류했다.

DC-8 항공기는 2015년 호주 화물사로부터 구입해 해체 직전 복원됐으며, 2016년 FAA(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은 직후 에콰도르 지진 피해 지역으로 긴급 의료팀과 함께 첫 출동했다. 해당 항공기는 이후 아이티, 토고, 탄자니아, 이스라엘, 미국 내 재난 지역 등지로 200회 이상 구호비행을 수행하며 870만 파운드 이상의 구호품을 수송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현재 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 내에 2곳의 긴급 의료센터, 9곳의 커뮤니티센터(방공호 포함),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을 위한 말(馬) 치료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975년 항공 구호 활동을 시작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항공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대경 기자

유버전, 성경 앱 10억 다운로드 돌파 기념 ‘글로벌 성경의 달’ 선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이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10억 회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글로벌 성경의 달(Global Bible Month)’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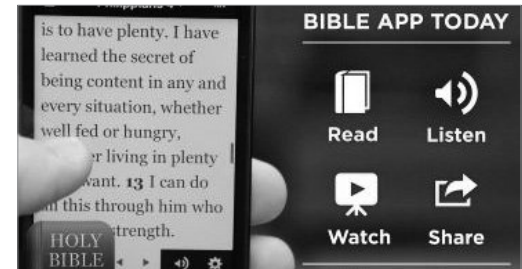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30일 성경 챌린지(30-Day Bible Challenge)’로 전 세계 신자들이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11월 17일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콤 센터(Paycom Center)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간증, 찬양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유버전 앱이 1,770만 회 이상 설치되었으며, 성서공회(Bible Society), 알파(Alpha), 24-7 기도운동(24-7 Prayer), 티어펀드(Tearfund) 등 700여 개 사역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옥스퍼드 세인트올데이트교회(Saint Aldate's Church)의 스티븐 포스터(Stephen Foster) 목사는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교회 출석이 늘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말씀의 변화적 능력이 영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버전의 창립자이자 CEO인 보비 그루엔월드(Bobby Gruenewald)는 “성경과의 교제에 대한 전 세계적 열기가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이 앱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깨어진 가정



©YouVersion

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10억 회 돌파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승리를 기념하는 일’이라며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의 손과 마음에 전하기 위해 세계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로벌 성경의 달 캠페인은 글로리파이(Glorify), 해로우(Hallow), 더 바이블 프로젝트(The Bible Project) 등 주요 기독교 플랫폼과 협력해 진행되며, 신자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거나 들으며 말씀과 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루엔월드는 “모두가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임을 우리는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11월, 단 30일만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라.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은 이미 그 말씀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찬양사역자 필 워햄(Phil Wickham), 로렌 다이글(Lauren Daigle), 브룩 리거트우드(Brooke Ligertwood)가 찬양을 인도하며, 크레이그 그로셴(Craig Groeschel),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Caine) 등 세계적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대경 기자



새로운 **농**
대한민국 농협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능을 평화롭게 하고
근육을 키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능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구매품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양국 정상은 서틀외교 복원의 필요성
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회담은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열리길 바
란다”고 제언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사법부 개편 드라이브 본격화…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비판 고조

“사법 독립 위협하는 정치 개입”… 전문가들,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법원 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 개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미 재판소원제 도입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까지 개편 대상에 올리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통제 시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TF의 핵심 논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해 법

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사법부의 자율적 개혁이 아닌, 정치권이 사법 행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현재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또는 기능 분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 관련 입법 추진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정창래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

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며,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수석대변인 박수현이 “정 대표의 지시로 TF 구성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한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해석을 잘못된 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법 전반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직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법 자율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은 결국 법원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사나 검사의 법 해석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법 판단을 정치권의 입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 교수는 “이 조항은 정치권이 판결 결과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권력 분립의 균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의 일련의 개혁안은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닌 사법부 장악 시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개혁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사법부 전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가 사법으로부터 물러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중국, 미국의 ‘301조’ 조사 보복 조치 철회…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해제 기대

미중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합의 도출
미국도 대응 조치 중단하며 협상 국면 전환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부과했던 제재를 곧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미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301조 조사 발표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

행으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조선·해운산업 보조금과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일부 외국 조선업체에 보복성 제재를 가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 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입 제한과 투자 제재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국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확대에 대응해 시행했던 일부 301조 대응 조치를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중국과의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분야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조선산업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조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이 실제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시기와 방식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은혜 기자

ADHD 치료제 오남용 확산… ‘공부약’ ‘다이어트약’으로 악용 막을 대책 시급

전문가들 “무분별 처방 병원조사와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유통 전반 관리체계 점검 요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ADHD 치료제의 적정 처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다 처방 병원에 대한 조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효용·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해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대량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중현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이 환자 한 명에게 연간 1만 정이 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처럼 과다 처방된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는 현재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DHD 확정 진단을 받지 않고도 비급여 처방을 통해 약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오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비급여 처방은 처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건당국의 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어 실질적인 제제가 어렵다. 일부 환자들은 신분을 증명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비급여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감독망

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단기간 비급여 처방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지만, 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망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처방 집중은 약품 공급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는 비교적 원활히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 중소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 황은경 씨는 “대학병원 등에서는 약을 쓸 수 있지만, 동네 병원은 처방하고 싶어도 약이 부족하다”며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정작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처럼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병원뿐 아니라 도매상,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이사는 “비급여로 처방받더라도 모든 처방 내역이 기록으로 남는 만큼, 환자의 약물 노출 이력을 면밀히 확인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비보험 처방을 통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방시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을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ADHD 치료제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기관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나래 기자

중고생, 가장 큰 고민은 ‘진로·진학’… AI 상담 비율이 교사보다 높아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진학’을 꼽았으며, 고민이 생겼을 때 교사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학생은 친구 관계를, 고등학생은 마음 건강을 주요 고민으로 꼽았다. 전국교육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96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중고등학생 고민과 사회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1,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83.7%가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

1 65.6%에서 고3 92.8%로 학년이 높을수록 비율이 급증했다. AI를 통해 고민을 상담한다는 학생은 15.5%로, 교사(14.9%)나 학교 상담실(5.1%)보다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28.4%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응답해 학교 내 상담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2%에 불과했고, ‘가고 싶었다는 응답이 23.6%로 집계됐다. 학년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이 늘어 고3의 경우 30.9%에 달했다.

정보 습득 경로는 유튜브(76.1%)와 SNS(69.9%)가 가장 많았으며, 댓글이나 타인의 반응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34.1%로 나타났다. 포털 검색은 28.9%, 사실 확인 없이 넘긴다는 비율은 18.3%였다. 사회적 압박감과 관련해 70.3%는 입사성적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52.9%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32.2%는 전문직·직업 등 작업적 압박을 호소했다. 불안 요인으로는 ‘문자화 범죄’(50.9%)가 가장 많았고, 정치 갈등(35.0%)과 기후 위기(3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나래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게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산만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폴 채펠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원칙(5 principles for living with spiritual clarity)’을 2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폴 채펠(Dr. Paul Chappell) 박사는 미국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카스터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West Coast Baptist College)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우리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매일같이 나라 안팎에서 위기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뉴스 피드를 잠깐만 훑어봐도 경악스러운 제목들이 눈에 띈다. 미국 도시 곳곳에서 안티파(Antifa) 시위가 일어나고, 세속적 인본주의는 부상하는 반면, 성경적 도덕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슬람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각국의 문화를 재구성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경은 청송받고, 권위에 대한 반항은 문화적 미덕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까지 더해지면 소음은 더욱 커진다. 핸드폰은 끊임

없이 울리고, 책임은 늘어나며, 마감일과 결정, 그리고 디지털 요구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다. 비록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해도, 우리는 쉽게 ‘긴급한 일’에 휩쓸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 결과 겉보기에는 활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주신 목적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분주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불안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간다. 쉽게 압도되고, 분노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끝없는 소음에 잠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부르신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작정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신실한 집중으로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분산시키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눈을 고정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선명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습관을 제시한다.

1. 방해 요소를 내려놓으라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한다. 모든 방해가 죄는 아니지만, 모든 방해는 시선을 그리스

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어떤 방해는 명확하다. 유혹, 잘못된 우선순위, 끝없는 소음 등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미묘하다. 과도한 약속, 비교심리, 혹은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밀어내는 경우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주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느리게 만들고 있는가?” 성경 주석가 윌리엄 뉴웬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다: “그것은 집인가, 낚개인가?”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라. “이 습관이 그리스도께로 나를 들어 올리는가, 아니면 붙잡아 두는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과 지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집중’의 방향에 있다.

2.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하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시편 27:4)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 끝없는 활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가 진짜 현실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말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쳐라. 예배는 시야를 재정렬하고, 기도는 우선

순위를 재배치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부담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것을 불드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3.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집중은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오직 한 일”을 말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3)

우리 주변에는 온갖 유혹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두려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앞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심, 애정, 그리고 야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릴 때마다, 산만함이 흠뻑한 평안을 되찾게 된다.

4. 경건한 습관을 세우라

신실한 집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다. 예배, 말씀 암송, 책임 있는 교제, 섬김의 리듬을 삶 속에 세우라. 이것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드는 신앙의 기준점이다. 습관은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다. 자체로는 힘을 공급하지 않지만, 방향을 유지하게 해준다.

경건한 습관은 영적 표류를 막고, 신앙에 꾸준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 습관들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비범한 영적 힘을 만들어 낸다.

5.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건넜다 (히브리서 12:2). 그분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고, 죽으셨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잠시이며, 영원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잠깐의 압박은 영원한 상급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

집중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상을 가져온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은 단순해지고, 우선순위는 분명해진다. 삶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로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영적 명확함이란 산만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잠시 멈추어 방향을 재정렬하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집중된 삶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지만 동시에 깊은 자유로움을 준다.

명확함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데서 비롯된다. 그분이 당신의 초점이 될 때,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아가나.

최승연 기자

“복음, 영적 차원뿐 아니라 윤리·도덕적 차원 포함해”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 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연민, 하나님의 플레로마에의 참여’라는 제목의 글

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장이었던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종교를 여기는 문화가 강했다”며 “기독교 초기에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로마인은 봉사나 구제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봉사나 구제는 신을 섬기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다.

이어 “당시 로마인은 종교와 윤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신을 섬겼다. 인간이 신의 섬김을 건드릴 때는 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의례 기준을 어겼을 때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 강령을 종교와 결부시켰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분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의 대상은 단지 믿는 가정이나 모든 사람이었다”고 했다.

또한 “이는 기독교의 세계화에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일상의 삶, 즉 인류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은 오이코스, 즉 집과 공동체에 대한 그레코-로만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는 인종 차별과 성차별이 심했다. 로마 사회에서 오이코스의 주인은 가부장, 가장, 가산 전체의 소유자만이 가능했다. 집안의 식구인 노예, 여성, 어린이와 임차인, 일꾼, 상공업의 조수들은 모두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유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 인간의 위계질서와 인권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였다. 그레코-로만식 오이코스의 위계질서는 바로 그 정의 자체 속에 지배와 종속을 수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운동 또는 선교는 하나님의 관능과 임재 장소로서 사람들의 삶 자체에 초점을 두고 오이코스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특히 예수님이 세 집단, 즉 광범한 빈자들, 병자들과 장애인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리스도교 운동은 지배적인 종교적·사회적 에토스 안으로 침투하여 인간의 평등성을 위한 새로운 집

을 창조했다”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자함과 선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으로 함께 모여, 새로운 집안을 형성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깊은 차원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빈곤하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러한 표현은 영성과 도덕성 간의 치명적인 분리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영성과 도덕성의 분리는 양쪽 모두에게 위험하고 자기 파괴적이다. 이러한 분리는 복음을 빈약하게 만들고, 복음이 지닌 보편적 경험의 기초를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한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준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지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직하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존엄성과 성실성을 심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연민을 경험할 때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한 연민은 강화된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윤리적 또는 도덕적 차원을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회적이고 참여적이므로 비사회적 또는 비윤리적 신앙과 신학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며 “비사회적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복음에 충실한 개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관심, 특히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은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부산물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과 영혼만을 말하며,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독교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며 “세상을 등지고, 이별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자 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깊은 차원에서 세상의 자기 파괴를 이미 용납한 것이며 그 불충분함으로 인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국정감사, 사감장으로 전락... 국회 스스로 개혁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사적인 감정의 표출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입법부의 자정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처럼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가 국가의 주요 기관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쟁과 개인 감정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국감이 아닌 사감(私感)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25년도 국정감사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런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이자 저질 국정감사로, F학점을 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모니터단은 27번째 국회를 감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주요 문제점으로선 법제사법위원장의 파행 운영, 상임위원장의 윤리 논란 등이 꼽혔다. 언론회는 “법사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선출을 부결시켜 국회법을 위반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90분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발원 제한과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감 기간 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이 국회에서 열려 논란이 됐다”며 “국회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언론회는 “감사 과정에서 언론을 퇴장시키거나, 감사장과 감사원장에 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 감정을 앞세운 언행이 이어졌다”며 “이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회는 세계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트프로젝트(WJP)의 ‘2025 세계 법치주의 지수’ 결과를 인용해 한국 국회의 청렴도가 143개국 중 68위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사법부는 민사사법 13위, 형사사법 15위 등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론회는 “입법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지 여부’ 항목에서 0.32점에 그친 데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금배지를 달았지만,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며 “국감장을 사적인 감정의 무대로 만든 의원들은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기원론 해설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창조

복음은 말 그대로 복 된 소식이다. 그 기독교 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하나는 창조요 또 하나는 구속이다. 구속은 타락을 전제하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창조였다. 사실 기독교의 창조 계시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요 사실이 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창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구원의 참 된 의미는 잠시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출된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가 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새 창조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 받게 된다는 것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본래의 창조되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다.

2) 진화

그런데 오늘날 여짜된 일인지 교회에서 구원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창조론이 아닌 우연론적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화를 과학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 성경에 아무리 창조라는 말이 있어도 창조의 사실을 용감하고 자신있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못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뢰하려고 드는 과학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말씀이 진리라고 하여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려는 것이다. 또 그와 반대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무조건 무시하려고만 든다. 1839년, 영국의 맥밀란은 폐달로 된 자전거를 처음으로 발명하였다. 그 때 일부 성직자들은 이것이 사단의 발명품이라 하여 한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일하라고 두 다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편하게 그런 괴물처럼 생긴 도구(?)를 탈 수 있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오늘날 교회로 물러드는 차량 행렬을 본다면 그들 성직자들은 과연 무어라고 말할까? 과학에 관한 무지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오류를 거듭할 수 있다. 과학을 단순히 하등 학문이라 외면하고 잘 알지 못하면 오늘날 과학과 관련된 환경문제나 인공 수정 및 인공 임신 종질, 건강, 핵문제, 컴퓨터 디지털, AI, 유전공학 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것

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전거 에피소드와 같은 실수를 언제든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단124), 창조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과학을 해석할 당위성을 가진다. 오늘날 사단은 기독교의 복음을 깨뜨리고 방해하며 못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창조를 공격하고 있다.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다른 종교만도 못한 기반을 가진 종교가 되고 만다. 기독교에서 창조를 제거하면 고층 건물에 그 기반이나 1층이 없는 것과도 같다. 마치 큰 교량이 있는데 교각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하고 이 진화론을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부터였다. 그 후 150년이 지난 오늘날은 마치 진화론을 믿어야만 과학자이고 창조를 믿으면 과학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 중세의 갈릴레이나 케플러, 뉴턴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창조 신앙을 가진 과학자였다. 당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의심없이 믿었으며 과학하는 태도에서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갈릴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

는 책'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책을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숨씨를 자연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였다. 그런데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하여 진화론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계론적이며 유물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3) 진화에서 우연으로(즉 창조인가 우연인가의 구도) 사실 진화라는 말 자체가 근본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세상은 늘 가변적이기에 하는 말이다. 진정한 문제는 진화라는 말 속에는 담긴 엉뚱한 세뇌와 함축이다. 즉 진화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진화를 넘어 발전, 발달, 변이, 변화, 과정이라는 모든 진보적 이념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진화는 어느새 세상이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상한 논리적 귀결의 단어로 둔갑하여 우뚝 서버린 것이다. 즉 진화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상한 이란성 쌍둥이 단어가 되어 사람들 마음 속에 착시 현상을 진실처럼 각인 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창조냐 진화냐" 구도는 함당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인가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발(자발)인가의 논쟁이, 종교나 논리 차원에서 보다 선명한 구도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창조론, 우연론, 진화론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논쟁이 아닌 인류의 보다 다른 차원의 영적 모티프를 다루는 영역일지도 모른다. 사단은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사실을 희미하게 희석하려 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하는 사람들은 마치 창조론을 믿으면 과학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

결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과학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도구로 그 질서를 주신 설계자의 오묘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좀더 가깝게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다. 사실 성경은 천지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고 계시하고 있다(롬1:20,시19:1-5). 4) 인간: 생명, 그 비참함과 패러독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우리들에게 직접 알아보라 명하셨다(사40:26). 사색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진지하게 삶과 생명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성찰할 때, 결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본 모습 앞에 스스로 홀로 서게 된다. 역사와 우주의 무한 속에서 사람은 유한한 생명에 불과하기에, 그것도 하늘의 한 경점만도 못한 인간이기에,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직설의 정의요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질기고 고집스럽고 자화자찬하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것일까? 컴퓨터의 원조, 천재 크리스천 과학자 파스칼은 광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부유하는 존재"라 했다. 이보다 더 적나라한 말이 있을까? 또한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 비참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여기 인간에 대해 반전의 정의의 내리신 유일한 분이 계신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다. 그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필리핀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담다



최선 목사

전 안양대 교수, OCU대 교수

508주년 종교개혁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필리핀 PTS대학교에 다녀왔다. 이사장과 학장 그리고 교수들과 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강좌가 진행되었다. 필리핀 전역에서 초청받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종교개혁기념 강의를 있었다. 특별히 목양교회(이규환 담임목사)가 준비한 장학금을 참석한 학장과 교수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전달하였다. 40년 전에 필리핀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PTS대학교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아 박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교육기관이다. 주바르선교회는 꾸준히 선교와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후원하기 위해 PTS대학교와 MOU를 맺었다. 의약품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한 목양교회 직분자들은 함께 남치는 헌신으로 그들을 섬겼다. 교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해외 선교를 통해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 그들의 아낌없는 희생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필자는 PTS대학교 종교개혁기념 강좌에서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16세기 불꽃같은 희생을 감당했던 종교개혁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프랑스 위그노들이 로마가톨릭으로부터 정

치적, 종교적 억압으로 고통을 겪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스위스의 제네바, 취리히, 바젤로 탈출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스위스로 프로테스탄트 피난민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각국에서 몰려들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천 년 가까운 세월(590~1517)동안 다양한 발전이 있었으나 종교적인 박해와 반성경적인 제도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성도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가톨릭의 극심한 물질적, 윤리적 타락에 맞서서 개혁의 등불을 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과 믿음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중세시대를 살펴보면 교회가 얼마나 혼탁하였나를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암흑기라고 명명하였을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나 교회는 황제의 보호아래서 점점 세속화되어 갔다. 중세시대에 들어서자 종교는 지속적으

로 타락해 오히려 반성경적이기까지 했다.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였기에 당시 책은 상당히 비쌌다. 거기다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는 물론 심지어 무지한 사제까지도 읽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은 성경이 주장하는 원래의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었다. 본질과 멀어진 것들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수정하자는 개혁정신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황 중심주의적인 권위와 인본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첨가되고 오염된 의식 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의 개혁교회

를 이어온 것이 오랫동안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종교의 자유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한다. 우리는 가식적인 종교의식과 하나님과 불통으로 기쁨이 없는 신앙행위를 경계하여야 하겠다. 바라기는 필리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개인과 가정, 사회를 정화하고 섬기기를 바란다. 필리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뱀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소통은 맞고 통합은 틀리다

박현숙 목사

프린스턴 미션,
인터넷 선교 사역자



1. 18세기,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서 신학도 전공했지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치 않았던 레싱은, 루터의 종교개혁 후 진행된 기독교의 경직적 교리화를 비판하면서 나름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에게 요한 복음서는 4복음서중 매우 매력적이고 중요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의 역설은 하나님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럿으로 생각하는 가능성, 즉 합리적인 범신론의 가능성과 관련된 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범신론의 주제는 ‘하나이자 전체’이고 ‘분리’가 아닌 ‘연합’이므로 이들에게 ‘총체적 조화’나 ‘우주적 조화’나 ‘사랑’이나 ‘통합’이니 하는 표현들은 필연적인 애용어가 되겠다.

‘십자가 신앙’이 부재하고로 정통 기독교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신의 초월성과 인격성을 부인하는 스피노자에게 기울어진 레싱에게,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는 아버지의 동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크고 위대한 조화’인 것이다.

성령 또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harmony)로 정의된다면, 레싱의 관점에서 볼때, 신격(Godhead) 안에서야 말로 가장 완전하게 다양한 가운데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 안에서의 ‘성령의 임재’가 부재한 합리주의자들에게 이 ‘조화’의 개념은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 범신론적 ‘조화’로 확장되어 나갔고 결국 예수신성 또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신성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훔덜린나체고흐1부 P. 412)

자유주의 신학의 우산을 쓴 범신론,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이 배척하는 것은 분리와 혐오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신적 ‘원위’와 질서이고,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분별한 평등을 방자한 ‘포용’과 평화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지만, 이들은 ‘말씀’ 없는 평등을 통해 그릇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창세기 17장의 아브람의 부름에 대해 헤겔은 이렇게 해석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는 부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처음부터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과 분리되는 - 즉 그가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부정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말이다.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훔니고1부 P.140,151)

헤겔에 따르면, ‘통일’된 존재의 느낌을 주던 자연속의 신들(우상)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아훼)을 따르게 된 후, 그는 자연

에 대해 이전의 친밀감 대신 두려움을 느낀고로 외부에 있는 신을 찾게 됨에 따라 그의 ‘보호자’로서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헤겔이 말하려는 것은, 자연신과의 ‘조화’로운 연합’을 떠나 인격신인 아훼 하나님과 연합한 아브라함은 지배와 노예적 ‘복종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종교는 생명을 약화시켜 생명력이 없는 종교이기에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나 예수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레싱이나 헤겔이나 술라이어마하나 그토록 갈구했던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종교였던 것이다(훔니고P.164)

그렇다! 아무리 출중한 이성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의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면, 말씀이 속속들이 심령에 스며들거나 깨달아지지 않기에, 헤겔처럼 자신의 사본적인 이성 작용에 따라 미혹된 영에 이끌려 영동한 해석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마는 것이다.

실로, 헤겔이 몰랐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연합이란,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각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주님의 영인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이자, 교회 공동체 내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엡4:4) 신자들의 일치와 연합(unity in diversity)이란 사실이었다.

3. 끝으로, 최근에 기록일보에 실린 오순절 신학 포럼 기사중 임성욱 박사의 ‘갈등의 세상 하나님의 신학 고별기도(요 17:1-26) 해석과 함의’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인용 기사 밑에 피력해보고자 한다.

“하나 됨의 신학은 1세기 초 기독교 특히 요한 공동체가 주류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내부 연대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신학적 언어였다”

“하나님의 신학(?)이라 칭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마무리 기도는 당시의 정치적 박해에서 공동체를 생존시키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연대나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주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연합과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보호,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연합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으로서 실로,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적 영성의 정수인 것이다

“말란이 지적인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의 원칙을 21세기의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그러므로 고별기도를 평가하기에 앞서 기원후 1세기의 초기 기독교 특히 요한 공동체와 현대 기독교 사이에는 중요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의 고별기도는 초기 기독교의 원칙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은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간극을 초월한 영생의 진리이다. 요한복음 전승에 대한 고대 기독교 전통에 비판적인 본문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동양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솔로몬 카이사르 말란의 지적이 과연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별기도의 하나 됨의 신학은 현대 사회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과거에 요한 공동체는 주류 사회로부터 핍박받는 소수 종교 공동체로 존재했지만, 현대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의 위치에서 하나 됨의 신학을 검토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삶 속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참된 신앙적 자세이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이성의 눈으로만 말씀을 읽은 레싱이나 헤겔, 술라이어마하같은 계몽주의자나 종교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신학’을 ‘재구성’이나 ‘검토’의 대상으로 운운하는 것은 심히 염려스럽고 개탄스런 일이다.

“첫째 과거 요한 공동체가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내부의 통합과 단결을 추구했다면 현대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양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고후6:6-10).

교회는 요한공동체나 지금이나 북한 공산주의 체제처럼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부 결속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가르침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지략과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함입어 기도로 인본주의의 영을 대적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신학은 기독교 공동체 내부를 넘어 세상과의 소통과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과의 ‘소통’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신자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과의 ‘통합’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6:14-16)

“요한복음의 통합이 공동체 내부의 일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특징으로 했다면 현대 기독교는 세상과의 갈등을 넘어서서 세상과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통합까지 지향하는 하나님의 신학을 탐구해야 한다”

세상과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통합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신학은 적그리스도 정부를 위한 신학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인가? 신학은 마땅히 신앙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 공동체 내부의 사랑의 언어를 넘어서서 때로는 적대적일 수도 우호적일 수도 타협적일 수도 있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조적으로 변형된 언어와 신학이 필요하다”

교회는 창조적으로 변형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지가 다하기까지 결코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마5:18, 계22:18-19).

“고별기도 속 하나님의 신학은 천상적 세계와 지상적 세계를 넘나든 예수의 실존처럼 세속화된 세계와 소통하는 종교의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를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규정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가는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상고에, 영원에 근본”을 두신(마5:2)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말2:6).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든다는 보살이나 헤라클레스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요1:18). 지상에서 주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고(마4:11) 천사를 명하시고(마26:53) 말씀의 권세로 마귀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다(마26:53, 막9:25).

예수님은 부활승천 후 약속대로 성령님을 모든 신자에게 보내주셨고, 고별기도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일치와 연합(unity in diversity)을 이루어 가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갈 것이다.

요한대 종교의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고후5:17) - 즉 예수님과 영적 연합에 의해 ‘말씀’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가을 묵상

이만규 목사

웨드멜레이제일장로교회



이 글을 쓰는 오후에 창밖에 불로어의 큰 소음이 들려옵니다. 가을비 후에 교회 길가에 아담하게 쌓인 낙엽들이 꽤나 깊은 가을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가드너 분들의 수고로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낙엽이 많아도 가을을 느껴 좋고, 낙엽이 없으면 깨끗해서 좋습니다. 떨어져 나뭇굴다 한 쪽에 모여, 내린 비와 엉겨 조금씩 부서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엽은 내년에 생명의 씨를 위한 거름입니다. 충분히 낙엽을 통해 땅에 거름이 주어져야 내년에 새로운 열매를 위한 자양분도 되고, 새로운 씨들이 싹을 틔게 하기 위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는 마른 낙엽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을이 찾아옵니다.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평생 귀요미로만 남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가고, 겨울에 바친 자신의 낯선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오래됨들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축복입니다.

구약이 있었기에 신약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으면, 성장하는 때도 있고, 열매가 많이 맺을 때도 있으면,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나의 신앙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뜨거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요, 씨앗을 심기도 하고, 잎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새 열매를 위해 가지를 치기도 하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때론 더더 보이도 농부의 땀방울은 쉬지 않고 우리 인생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에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구름이 있어도 가끔씩 구름 너머로 비추는 햇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을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 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I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29

「바른예수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지」의 신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오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자아도취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물려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대중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늪에 빠져있지만,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구제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큰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무지의 죄」가 아닙니까? 「무지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천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2천 년 전, 예수님을 배척한 가롯 유다나, 그를 이용하여 예수를 잡아 죽게 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방불하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무지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의 원수가 되는 신(여호와) 등을 하나님으로 믿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죄」의 근원입니다. 예수의 전리가 아닌 학설이나 종교의 교리, 조직된 원시 부족의 신앙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는 수차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미신 신앙을 버려라」, 「무지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해준다」, 「코로나 전염병이 절대 침투하지 않는다」, 「예방백신을 맞지 말라」, 「만약엔 만사가 형통하다」, 「우리들만 휴가된다」 등의 말을 외치는 자들은 모두가 도둑이요, 사기꾼임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B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



통하여 저자가 느끼고 생각한 기다림에 관한 교훈을 독자와 공유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모든 글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면서 마음 속에서 여러 생각이 일어나 뒤섞이는 것처럼, 이 책은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우리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독자를 무수히 많은 생각의 물살에 표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다. 저자 구헌우 목사는 결국 독자로 하여금 기다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바라보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도록 이끌어준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로 한다. 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결서로 오래도록 함께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그러니 다시 이렇게 말해 본다. ‘하나님 다시 썩확하게 기다려 보겠습디다!’”(13p).

저자 구현우 목사는 현재 위더처치(WeTheChurch)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과 선교신학을 공부했다. 2021년 Passover 출판사에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 큐티, 하나님과 다루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라는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가디림에 필요한 사람>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에세이 형식으로 주제를 다룬 책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저자는 H. B. 찰스 주니어인데, 그는 “설교에 관하여”(On Preaching)와 “목회에 관하여”(On Pastoring), “예배에 관하여”(On Worship)라는 책으로 각각의 주제를 다루면서, 에세이 형식을 굉장히 잘 살렸다. 찰스 주니어의 책과 비교하자면 구헌우 목사의 글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찰스는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자기 생각을 여러 예화를 곁들여 설명하면서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뚜렷이 보이는 반면, 구헌우 목사는 가디림에 입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더듬어 독자의 마음에 최대한 가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생각의 방식과 기질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기다림을 견디는 모습도 천차만별인 것 같다. 또한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을 인내하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큰 시험과 고난 중에 담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자가 묘사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과 처지가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나 느껴보지는 않는데라고 어릴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물론,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독자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기다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대적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나만큼 기다려
본 적이 없어서 그래' 혹은 '저 사람은 기다리는 태도가 왜 저
렇게 부실한 거지?'라는 비판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지 말아
야 한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결
국 혼자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173p).

사실상 모든 사람은 기다림 중에 있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연약하고 부패한 육신을 벗어버릴 날을 기다린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인내하고 연단 받고 복음이 약속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내내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더 또렷이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다. 구현우 목사의 책 <가다림에 필요한 것들>이 기독교론이나 구원론을 다루는 신학 서적만큼 뚜렷하게 진리로 그리스도를 비추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마음을 이루만지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T가 아니라 F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MBTI로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함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빚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기다림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보배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한다.

단,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시간

다윗, 그 위대한 영성의 비밀

이 책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영성의 본질을 탐구한 신앙서이다. 저자는 다윗의 삶을 단순히 영웅담으로 보지 않고, 죄와 회개, 고난과 회복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간의 영적 여정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그리스도인은 흔히 다윗의 승리와 영광만을 바라본다. 그

리나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살고 싶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본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이 책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걸어야 할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다윗은 실수와 죄로 무너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 예



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였다. <다윗, 그 위대한 영성의 비밀>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그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여정이었다. 다윗의 눈물, 찬양, 화해, 그리고 고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언어였다.

이 책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쓰러져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최승연 기자

이정현, 첫 그림책 '몽글몽글 숲속 요리사' 출간

따뜻한 요리와 나눔의 메시지 담은 감성 그림책... 인세 전액 어린이병원에 기부



가수이자 배우, 그리고 '요리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이영현 작가(사진)가 첫 그림책 '뽕글뽕글 숲속 요리사'를 출간했다. 출판사 웅진씽크빅은 최근 이영현 작가의 신작이 출간됐으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요리의 즐거움을 전하는 작품"이라

고 소개했다.

이번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요리의 가치와 사랑, 나

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요리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그리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읽고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감성 동화로 완성됐다.

‘몽글몽글 숲속 요리사’는 요리를 좋아하는 어린이 사와 반려견 토리가 감기에 걸린 고양이 가족을 위해 가을 재료로 정성껏 요리 한 상을 차려주는 이야기다. 초판에는 특별 부록으로 ‘몽글몽글 숲속 요리사’ 컬러링 활동지가 포함된 아이들이 책 속 세계를 직접 색칠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

도록 구성됐다.

이정현 작가는 이번 책의 인세 전액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평소 방송과 SNS를 통해 꾸준히 요리 콘텐츠를 선보이며 ‘요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왔고, 이번 그림책에서도 요리를 통해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아냈다. 그림은 섬세한 색감과 따뜻한 분위기로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소금이 작가గా 맡았다. 소금이 작가는 자연의 질감과 계절의 온기를 섬세한 그림체로 표현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웅진씽크빅은 “아이들이 요리와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절별 요리 그림책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정현 작가의 첫 그림책이 가족 간의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인생의 영적 뿌리를 은혜의 대지 아래로 깊게 내리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탕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나 지식, 체험, 열심에 기초하여 구원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신앙은 생생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믿음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권오국 '복음, 삶으로 번역하다'



교회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곧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나뿐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목사가 다 하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역하는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나는 믿는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쓰이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헌금의 쓰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헌금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도 사용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헌금을 드려야 한다. 전인철 '마하는 일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는 내면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늘 배우고 하듯이 “성품이 곧 능력”입니다. 잘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화목하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는 것은 모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능력이 다들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도 부족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패하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수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대다수 “자, 실 제에게 특정한 기도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까?”와 동일한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이 없으면 결국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힘들 듯이, 수시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성도도 실제로 그 삶을 보면 기도의 규칙성이나 집중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산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크리스천투데이



이 책은
한글로 쓰여 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말씨와 쉬운 문체로 전하
이 시대 감동과 생명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사무엘하 5: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체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이 그 마음에 거하기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을 특히 사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체들에게는 이런 때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때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우리는 갑절로 기도해야 하며, 갑절로 열심을 내어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고 박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장 부담게 물으로 나아갑시다. 오순절 때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도하며 독특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약속들을 여

러분의 것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히 비치는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혹은 주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특별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도 평소보다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는 즐거운 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분발케 하는 때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도우시는 동안 어떤 악한 습관이든 다 제거해 버릴 때입니다. 그러니 뜻을 꺾고 때때로 다음과 같이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쫓만 쫓 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주께서 순풍을 주시옵소서”

뫋만 분명히 올리십시오. 순풍 맞을 준비가 안 되어 흑사라도 순풍이 부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좀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자유를 좀더 많이 갖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와 좀더 가까이 사는 동안 여러분의 대화가 좀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 새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아는 것의 중요성과 유익 (8)

넷째, 신학 지식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영적이고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 좋은 수단과 큰 이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은혜의 수단도 지식이 없이는 마음에 구원을 주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복음의 탁월함을 보고, 복음의 달콤함을 맛볼 기회를 더욱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복음의 영광을 볼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학 지식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

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신학 지식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의적이고 착한 심성을 갖고 있지만 신중함이 부족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 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서도 선보다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2절에 따르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선하게 행동하지 못

하는 것은 은혜는 원하면서도 지식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에도 신학 지식이 많으면 유익한 대화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학 지식은 함께 모이거나 이웃을 방문할 때, 여러분에게 대화의 소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대화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

다섯째, 여러분은 지금 신학 지식을 얻는 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많은 신학 지식을 얻는 데 있어 구약 시대 성도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시대 이후 더 많이 기록되었고, 복음

적인 진리가 지금 더 많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반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보다 현재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점에서 신학 지식을 얻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과 다른 신학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간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저렴하게 책을 구입해 기독교 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섯째,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원리에 대해 어떤 반대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학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당한 신학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34:1-2 NIV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2] I will glory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 extol: 극찬(極讚)하다, 크게 찬양(讚揚)하다
- at all times: 언제나, 항상
- praise: (하나님에 대한) 찬송(讚頌)
- glory in ~: ~를 자랑하다
- afflict: 괴롭하다
- ☞ ‘the afflicted’: 괴로운 사람들
- rejoice: 크게 기뻐하다

시편 34편 1-2절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크게 찬양할 것이니, 내 입술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괴로운 이들이 찬송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하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바이블지식IN

생명의 강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의 강”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1-2에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

른다고 묘사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영생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2:3).

구약성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

두지 못할 타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었습니다 (예레미야 2:13).

이스라엘 민족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재버리고 거짓 우상, 세속주의, 행위종교를 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거절하고, 물질주의와 방종의 건조하고 착착한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가 다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그 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가져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13-14).

요한복음 7:38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분을 믿는 자들은 그들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매우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생명의 상징입니다. 마치 물리적인 물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구원자로부터의 생수는 그 분과 함께 영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분을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지탱해 줄 “생명의 떡” (요한복음 6:35)이시자 생명수의 원천 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겁니다. 갓케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8) **묵상으로서의 명상, 주의와 정서를 조절한다(上)**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묵상과 명상, 그리고 학제적 상위 개념으로서의 묵상적 수행(CP)

손매남 박사 신경신학(Neurotheology)이 인간 의식의 심층적 변화와 신앙적 삶의 성숙이 신경생물학적 토대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주제이다. 묵상적 수행(Contemplative Practices, CP)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에서 자주 혼용되는 묵상과 명상의 어원적 유래와 학술적 용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컨TEMPL러티브 프랙티스(Contemplative Practices, CP)'를 '묵상적 수행'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채택된 배경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1) 명상과 묵상의 개념적 역할

'명상(Meditation, 瞑想)'과 '묵상(默想)', 이 두 용어는 라틴어 'meditari'('숙고하다', '반복하여 훈련한다는 의미')의 뿌리를 공유하며 깊은 정신적 훈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 학술적 맥락에서 기능이 분화된다.

명상은 현대 과학에서 주의 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을 훈련하는 중립적인 기술 용어로 쓰인다. 호흡 주의, 바디스캔, 마음챙김(Mindfulness) 등이 대표적이다.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의 되새김질

을 줄이고 정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의 렌즈를 닦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 묵상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인격적 대상(하나님)에 대한 관계 지향성을 강화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신앙 체험)을 떠올리는 것이 묵상 수행의 핵심적인 바탕이 된다. 묵상은 명상을 통해 조절된 마음 상태로, 말씀과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의미와 관계를 부여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면, 명상과 묵상은 기술은 겹치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명확히 다르다. 명상은 조절을 목표로 하고, 묵상은 그 조절 위에 성화(聖化), 곧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라는 의미와 관계를 부여한다.

2) 'Contemplative Practices(CP)'를 '묵상적 수행'으로 규정하고 사용하는 이유

명상(기술)과 묵상(목적)의 구분이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Contemplative Practices(CP)'를 '묵상적 수행'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학제적 필요성과 연구 관행의 확산에 기인한다.

① 학제적 통합과 용어 선택의 필요성:

현대 과학에서 '명상(Meditation)'은 주의 조절이나 정서 조절처럼 측정하기 쉬운 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행 맥락에서 명상은 본래 덕성, 자비, 지혜 등 인격적 덕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서구 영성 전통은 성경 텍스트를 읽고 능동적으로 숙고하는 단계(Lectio Divina, meditatio)가 깊은 관상적 통찰(Contemplatio)로 심화되는 연속적인 수행 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한 '명상'이라는 기법에서



명상은 현대 과학에서 주의 조절과 정서 조절을 훈련하는 중립적인 기술 용어로 쓰인다. 부정적인 생각의 되새김질을 줄이고 정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의 렌즈를 닦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unsplash

출발해 관상, 덕성, 통찰과 같은 궁극적 목표로 심화되는 전 범위를 아우르기 위해, 이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묵상적 수행(CP)'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단순히 '주의 집중'에만 머물지 않고, 자비, 윤리, 목적성 등 인격적 변화까지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 대학교의 'CHM(Center for Healthy Minds 건강한 마음 센터)'이 웰빙을 구성하는 4가지 훈련 요소(주의·정서·연결·성·목적성)로 모델링하면서, CP는 유연성과 지구력·주의·정서)뿐만 아니라 협력력과 균형감(연결·통찰·목적)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종합적인 훈련 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② 연구 관행과 학제적 정착 과정: CP가 학제 연구의 실질적인 공용어로 정착하게 된 과정은 특정 학회의 공식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주요 연구 네트워크와 기관을 통한 실무적이고 관행적인 확산의 결과

이다. 그 배경에는 1987년에 시작된 '마음과 삶 대화(Mind & Life Dialogues)'가 동양 수행 전통을 서구 과학적 탐구와 연결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후 연구 어젠다가 '관상·자비·윤리'와 같은 폭넓은 주제로 확장되면서 '명상'보다 넓은 '컨TEMPL러티브 프랙티스(CP)'라는 어휘가 공용어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또한, 'CMind(Center for Contemplative Mind in Society, 사회 속 성찰적 마음 연구소)'가 교육, 임상, 조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지형도인 '묵상적 수행 지형도(Tree of Contemplative Practices)'를 제시하며 현장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CHM 역시 '웰빙의 가소성' 관점에서 CP를 훈련 기반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며 학제적 정착을 뒷받침했다.

학자들 중에서는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뉴로페노메놀로지(Neurophenomenology)를 통해 1인칭 경험과 신경과학의 접합을 제안했으며, 클리프드 사론(Clifford Saron)은 '사마타 프



묵상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인격적 대상(하나님)에 대한 관계 지향성을 강화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신앙 체험)을 떠올리는 것이 묵상 수행의 핵심적인 바탕이 된다. ©unsplash

로젝트(Shamatha Project)'를 통해 장기 집중 수행의 효과를 탐구하여 '주의' 중심의 좁은 연구를 전인적 변화를 겨냥하는 넓은 의미의 CP 연구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묵상과 명상의 주요 차별점

앞에서 살펴본 명상과 묵상의 개념적 역할을 토대로, 두 수행 기법의 차이점을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명상과 묵상은 깊은 정신 훈련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지향점과 활용 방식에서 네 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대상성의 차이이다. 명상이 호흡이나 현재의 신체 감각과 같은 비대상적 주의 또는 현재의 경험 자체를 다루는 경향이 큰 반면, 묵상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대상에 주의를 고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언어성의 차이이다. 명상은 사유나 개념을 내려놓는 비언어적 고요와 순수한 주의 집중을 중심에 두지만, 묵상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셋째, 목표의 차이이다. 명상의 목표가 주로 증상 감소,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삶의 충만감이라는 개인적 만족감의 개선에 있다면,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 자비, 용서와 같이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성화)에 있다.

넷째, 관계 맥락의 차이이다. 명상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조절에 머무르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묵상은 '하나님-자가-이웃'이라는 관계 속에서 영적 의미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계속〉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오늘의 예화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자네들 그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라고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게 아니면 누가 한 거냐? 도대체 그럼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노교수께서는 다시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

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한 것이라고 아주 신중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바로 마틴 루터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때에 루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께서는 다른 것은 전부 참고하게 하고 오로지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한 학기 내내 Page by page, 읽고 토론하고 연구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 주

석을 두 번 썼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좀 작고 뒤에 쓴 것은 아주 큰데 신구약 성경보다도 큼니다. 이 갈라디아 주석을 읽어 나가노라면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에서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난 생명력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 이 생명력이

그를 포로해서, 그를 사로잡아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잡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순종할 따름입니다.

4,240번의 연구로 태어난

스킨 허그 미스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E급 논문 등재
큰애매 모자반
성분 함유

11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100ml / 3.38 fl. oz.

skin hug mist

100ml / 3.38 fl. oz.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은혜의 샘물 **역사가 주는 교훈** (1)

[마태복음 6장 33절]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William Barclay)의 저술 가운데 “고대 세계에 나타난 교육 이념”이란 글이 있다. 이 글 속에 두 개의 상반되는 교육 이념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스파르타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교육이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엄강하고 준법정신이 강하며, 애국심이 왕성한 군인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중점은 무술에 있었고, 지식을 키우는 것은 문학이나 예술에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읽기와 쓰기 학습은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스파르타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하약하거나 기형인 아이들은 동굴에 내다 버리고, 건강한 아이만을 키우도록 했다. 나이 일곱 살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동 교육소에 입시켜서 감독관 아래서 엄격한 지도를 받게 하였고, 열두 살 때부터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병영 생활을 시켰다. 교육 내용을 보면, 고통과 결합을 강조하는 용맹심, 인내심, 애국심, 복종심과 같은 체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달리기, 뛰뛰기, 검술, 씨름, 승마, 투창, 수영, 수렵을 가르쳤고, 이밖에 무용 및 종교적인 의식을 음악과 함께 가르쳤다. 그런데 무용도 체육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는 기술과 관련시켜 가르쳤다. 이들의 훈련 과정에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도둑질과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농로를 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스파르타 교육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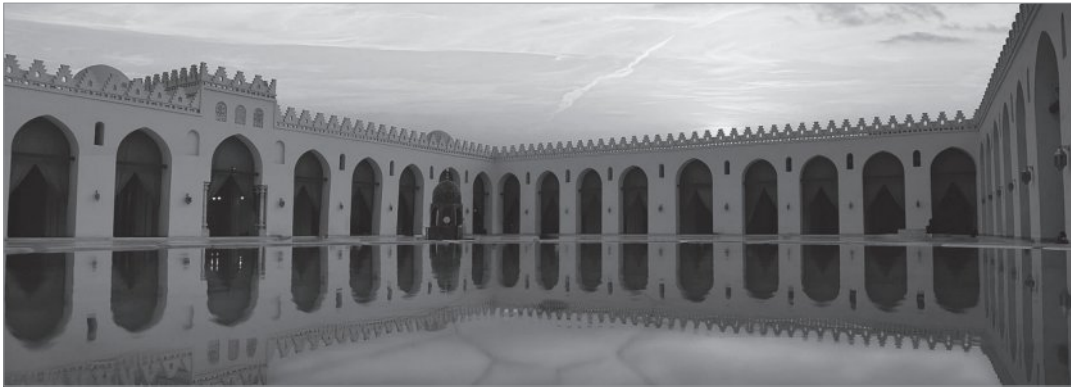
유대인 교육도 스파르타 교육에 전혀 뒤지지 않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주전 1000년 전에 실시되었던 학교 입학식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대상은 다섯 살에서 일곱 살 된 사나이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목욕을 한다. 그리고 나서 금실이 바른 예복을 착용한다. 반드시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 가운데 지체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회당으로 간다. 회당 앞에 놓인 두루마리 앞에 아버지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버지를 따라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26절을 반복해서 외운다. 이 계명은 먼 옛날 조상들이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시내 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은 서약의 내용이다. 이 계명을 외우고 나면 하잔(Hazzan)이라 불리는 교사의 집으로 간다. 하잔은 문간에 서 사나이아이를 포옹하며 입을 맞추는다. 방안으로 인도된 아인가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신명기 33장 4절이 쓰여진 돌판을 아이앞에 갖다 놓는다. 여기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아람의 총회의 기암이라.”라고 새겨 있다. 아어서 아이는 하잔을 따라 성경 암송을 반복한다. 하잔은 그 위에 꿀을 바르고, 아인가는 얼뜨려 그 꿀을 핥아먹는다. 에스겔의 신앙경험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나게 이르시도,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붙여, 네 창자에 채우리.” 하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안에서 달가이 꿀 같더라.”고 하였다. 아어서 아이는 성경 말씀이 새겨진 케이크를 먹는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고, 총

은 기억력을 달라고 천사에게 기도한다.

스파르타 교육은 과연 효력이 있어서 27년간을 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전 404년에 종식시키고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억압적인 행동은 여러 도시국가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불과 33년 만인 주전 371년에 작은 도시국가인 테베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점차 국운이 쇠하여져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강한 체력과 전술을 바탕으로 한 스파르타의 군사력도 아무 쓸모없이 역사의 심판 앞에 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낙담하게 보이는 유대인 교육,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이 하찮은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북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 왕국이 주전 605년에 바빌론 제국에 침공을 받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게 차례로 주권을 빼앗긴 채 740년간 지배를 받았고, 주후 135년 이후로는 1948년 5월 14일 국가가 재건되기까지 무려 1,813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로 흩어졌으며, 이 기간에 무려 1,2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살아남아 있다.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망하고, 약한 자가 끈질기게 역사의 맥을 이어 살아간다는 역사의 교훈은 실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교육 사이에는 역사관의 큰 차이가 있다. 스파르타 교육은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역사를 읽



있고, 유대인 교육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역사를 읽었다. 또 이 두 교육 사이에는 가치관의 큰 차이가 있다. 스파르타 교육은 물질과 권력에 다 가치를 두었고, 유대인 교육은 신앙과 정신에 다 가치를 두었다.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자란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냉철한 지성이 없는 무력, 따뜻한 가슴이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열혈적인 정기가 없었어야 했다. 정신이 없는 무력, 혼이 빠진 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인류에게 파멸을 몰고 오는 것인가를 알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쿠리도 물질에 가치를 두고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 유물론을 주장하고 유신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돈과 권세와 명예에다 가치를 두고 청빈과 봉사와 신앙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사회를 좁막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적자생존과 약

육강식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재창조와 새 출발의 정신인 창조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위험천만인가를 알아야 한다.

함이 세고 이성적이며 활과 칼로 무장한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팔촉 한 그릇에 가치
 를 두었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
 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험잡고 여성적이
 만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한 아담이 결국 활과 칼
 로 무장한 에서를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성경은 가
 르치고 있다. 비록 나이 어린 미소녀에 불과했지
 만,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
 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장대한 골격과 큰 칼과 방
 패만을 보고 무서워 떨 때에, 전혀 그를 무서워하
 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갔으며, 같
 이나 활이 아닌 강바닥에서 줄을 돌 몇 개만으로
 그를 쳐서 쓰러뜨렸다. 이 사건은 지성이 무력을,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대한 교
 훈이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향유옥합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 어떤 인공의 환경도 없습니다. 아니 좋은 인공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이 곧 자연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단히 자연으로 가면 될 것을!

오늘 이 가을 등산화를 신거나 더 좋게는 맨발로 산길을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싸고 고귀한 산소와 산 기운과 바람과 하늘 숲의 아름다움을 거저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농장에서는 퇴비를 나르며 이 특권을 누리하고자 모입니다. 그저 산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교회오빠

싸구려 인형과 행복

영국에 살던 한 백인부부가 아프리카로 이민을 계획했다. 그들은 곧 전 재산을 처분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큰 농장을 경영하였다. 넓은 농토와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백인부부는 얼마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온지 삼 년도 채 못되어 남편이 풍토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다. 더구나 그 해는 심한 가뭄으로 잘 되던 농사까지 망쳐 백인 부인은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인은 남편도 잃은데다가 농사도 잘 되지 않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부인이 떠날 때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하녀의 어린 딸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주인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소녀가 별판에서 주워 가지고 놀던, 가장 아끼던 빛나는 돌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부인은 소녀가 준 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임이 밝혀져 하루 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흑인 소녀는 차차 부인에게서 잊혀져 갔다.

어느날 불현듯 흑인소녀가 생각난 부인은 싸구려 인형을 하나 사서 아프리카로 보냈다. 흑인소녀는 그 인형을 받고 너무 좋아했다. 날마다 인형과 함께 놀면서 마치 살아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그리고 소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아
이가 걸어다니고 말을 할 즈음 그녀는 그 인형을
자기 딸에게 물려주었다. 그 딸은 그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형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냈다.

한편 부인은 자신의 돈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의 권모술수에 수없이 시달려야 했으며, 나아가 들어서는 상속 문제로 자식들과 불화가 생겨 집안이 둘로 갈라져 원수처럼 지내야 했다. 결국 백인부인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양로원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했다.

창고산 봉복사 제공



참된 ‘찬송’이란

참된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기에 충분하지만 잘못된 찬송은 진노의 포도주통에 들어가기 알맞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는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만한 참된 찬송을 드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찬송이 자기도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벨의 제사처럼 오직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열납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저 자기도취가 되어 흥을 내고 격앙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단에게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순수한 음악적 쾌락은 금지되어야 한다.

찬송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서 스스

로 즐겁고 불려서 스스로 감동을 받는 그런 음악적 쾌락은 금지되어야 한다. 경배하는 마음없이 자기의 음악수준을 뽐내거나 즐거운 마음만을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사단과 교통하는 행동이 되기 십상이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을 경계하여야 한다.

찬송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신앙만을 강조하다가 후일 예술성이 가미된 많은 찬송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찬송에서의 중요성도 처음엔 찬송 가사의 의미에서 후일에는 찬송곡의 아름다움, 가락, 기술 등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뜻없이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레고리

안 성가라 하여 라틴어로 된 중세의 찬송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찬송이 아니고 단순한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른다. 따라서 찬양대가 그 성가를 부른다면 아무 뜻없이 찬송을 부르는 기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넷째, 찬송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세상의 노래를 듣기에 더 열심이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어찌 참된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 사단은 절대로 침입하지 못한다.

지금 내 입술로 드리는 찬양은 과연 하나님께서 흠찬하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자.

찬양이라는 옷을 입은 나의 노래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두려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출처: 다음카페 만나와 매추라기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2

음악의 효과적인 사역(MUSIC’S EFFECTIVE MINISTRY)

다윗의 음악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 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삼상 16:23). 버클리 개정판은 “그것은 사울을 편하게 해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쾌한” 그리고 “편안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라박(ravach)인데, “넓어지는 공간이 커지는, 안도감을 가져다주도록 여유 공간을 부여하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파트(Moffatt)는 “그는 사울



김영국 목사

이 자유롭게 숨을 쉴 때까지 연주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젊은 청년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 젊은이의 음악은 캄캄함에 휩싸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왕의 가슴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만든 원시적인 현악기를 어깨에 메고 사울이 살고 있던 그 어두운 곳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사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무엇든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라. 누구든 상관없다. 그를 데려오라”

다윗의 음악은 이 고뇌의 사람에게 우리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을 풀어 주어 그 안에 있는 사나운 짐승의 마음을 달래어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날 즈음에는 그는 안정이 되었고 사악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침실로 들어가게 하려고 음악이라는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이 자신의 혼을 어루만져 준 젊은 목동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두 가지들 소유하기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시편가(a Psalter)라고 불렀던 찬송가(a hymnal)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경책과 그 믿음의 깊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줄 시편가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조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는 교리의 선포와 그것이 노래에 담은,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거나 인간의 소리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음악이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읊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벽 별이 함께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때 별들이 목소리를 내었든지 아니면 천군천사들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후자의 뜻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서서 창조주께 찬양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화음이 있는 음악이었을 것

입니다.

또한 내가 계시록의 장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 우리의 최고의 표현은 노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세상이 생기기 전에 노래가 있었고 세상이 지나간 후에도 노래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그분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자주 노래를 불렀나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찬송을 얼마나 불렀나요? 우리의 목소리는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 성경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일에는 좀처럼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나는 음악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마틴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최상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나님께서도 음악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성경책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이 히브리인의 찬송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찰스 해든 스펔전은 그의 시편주석인 『다윗의 보물』(The Treasury of David)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에 대한 즐거운 연구는 나에게 한이 없는 유익과 계속 늘어나는 기쁨을 내어주었

다.” 그는 후에 시편을 “비할 데 없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벼운 가사와 쉽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노래들만을 좋아한다면 시편을 진정으로 즐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편은 음악의 정의를 예리한 사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악입니다. 시편은 피상적이거나 알팍한 서술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3편, 91편, 시 100편, 그리고 시 119편의 일부뿐... 그러나 대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시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실, 나는 영적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생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감정이 힘들 때마다 시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눈여겨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G. Campbell Morgan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인간 혼의 감정이 그 안에서 표현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지, 당신도 나처럼 변화하는 기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기분을 표현하도록 당신을 도와줄 시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쁘세요? 난 당신이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슬프세요? 나는 거기에 알맞은 시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과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이 시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한 어조가 무엇이든, 장조이든 혹은 단조이든 저자는 하나님을 의

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라는 책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은 내가 그분에게 나의 찬송을 노래하는 그때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찬송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멜로디는 하늘로 곧바로 올려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테나가 항상 수신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당신의 노래의 수고가 항상 곁따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소리로 사람들의 패배의식을 깨워 보내기에 충분한 소리로 크게 노래하세요. 내성적인 거리낌과 주저함의 우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크게 노래하세요! 한창 노래하세요! 당신은 성가대원이 되려고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담아 멜로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친 후에 자세히 들어보면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절망과 우울의 철장으로 부터 해방된, 긍정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갈망과 능력을 주시고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인 음악을 필요로 하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oft Music for a Hard Heart』 by Charles R. Swindoll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살롬노래선교단, 창작 묵상찬양 앨범 ‘Sweet Bible’ 발매



살롬노래선교단이 레이블 ‘Youth Company’를 통해 창작 묵상찬양 앨범 ‘Sweet Bible(빌립보서)-초대’를 공식 발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롬노래선교단 재창단 이후 본격적인 창작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묵상하고 노래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음악으로 앨범에 담았다고 한다.

이번 앨범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 만들어진 총 6곡의 묵상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곡은 살롬노래선교단 소속 황이진이 작사·작곡을 맡았으며, 이지연과 박대인이 편곡에 참여했다.

박찬양, 박정비, 홍준기, 강다은, 이지연과 황이진이 보컬로 함께해 ‘하나님의 Playlist’라는 ‘Youth Company’의 정체성을 음악적으로 완성했다.

‘Sweet Bible’은 성경을 ‘읽고, 듣고, 부르고, 묵상’하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만든 앨범이다. 그 첫 번째 콘텐츠인 ‘빌립보서-초대’는 성경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여섯 곡으로 해석한 묵상 찬양 시리즈다.

빌립보서 4장 4-7절 말씀을 바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표현한 타이틀곡 ‘다시 말하니 기뻐해’는 청년들의 담백한 보컬 위로 감성적인 스트링 사운드가 어



살롬노래선교단 단원들 ©인피니스

우려지며 묵상과 삶을 음악으로 묘사했다.

살롬노래선교단의 창작 레이블 ‘Youth Company’는 ‘You create. He receives. (당신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형식의 제한 없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며, 노래, 댄스, 뮤지컬, 브이로그 등 하나님께 향한 각자의 고백을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살롬노래선교단 관계자는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반이 아니라,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노래하는 과정 그 자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창단된 기독교 복음 문화 선교단체인 살롬노래선교단은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In the world. Out to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음악과 공연, 예술 콘텐츠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어린이 복음 뮤지컬 ‘솔티와 함께’를 시그니처 콘텐츠로 삼아 다양한 레이블을 운영하며, 각 레이블은 고유 의 형식과 타깃으로 복음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다음세대 붐업 페스타’ 열린다

감리회 교육국 주최로 11월 7~8일 서울 꽃재교회에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다음세대 붐업(Boom Up) 페스타’가 오는 11월 7-8일 서울 꽃재교회(담임 김성복 목사)에서 열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김정석) 교육국이 주최하고 서울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목회자와 성도, 교사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야 온세대 예배’와 ‘비전 선포식 및 교육 박람회’로 진행된다.

7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전야 온세대 예배’는 꽃재교회의 ‘예수인 기도회’와 함께 진행되며,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배당 앞 잔자리를 아이들에게 개방하고,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다윗키즈’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교회학교서울연회연합회가 서울연회 13개 지방회의 모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발해 모범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목은 “이번 온세대 예배는 단순한 전야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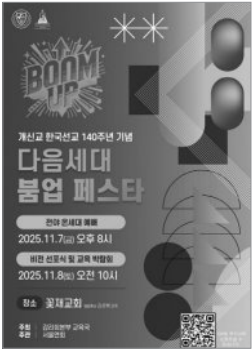
의 중심으로 세우는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예배의 관객이 아닌 참여자이자 주인공으로 서는 예배를 통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전 선포식과 교육 박람회가 진행된다. 김정석 감목회장이 설교하고, 서울연회 어린이, 청소년, 교사 대표가 ‘다음세대 비전 선언문’을 선포한다.

교육 박람회는 개체교회 및 기관의 교회학교 성장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를 박람회 형식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10여 개 이상의 서울연회 소속 교회가 마련한 부스와 교육국이 추천한 특별 참가팀 부스를 비롯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용 부스가 마련된다.

교육 박람회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학교 서울연회연합회에서 준비한 ‘복화술 전도집회’(강사 수잔 실장)가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주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 울림(38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쇼 통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이장균 목사(순복음강남교회)	20 할렐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메들형제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50 하용조 목사의 사랑	00 생명의 양식 대환(윤영민) 30 축복의 말씀(차영아)(356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7:00	00 CTS 뉴스 W 20 생명의 말씀-박성순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형식 목사(필그림교회)	20 행복한 침터 이리신광교회 권오국 목사 50 행복한 침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79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3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조경민 목사의 답답담 30 행복한 침터 삼천포 삼한교회 하태경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2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77회) 고린도전서 10장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룩 30 비전메시지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교회 이재필 목사	00 [말씀] 반태호 목사(빙주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실쇼	10 새롭게하소서(11358회) 김기중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10:00	00 오마이갓생 20 말씀대로 살라-김선교 선교사	00 사론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찾기	00 파워인터뷰(192회) 20 극우의 그늘을 넘어 복음의 빛으로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신
	11:00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50 마라톤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50 예수동행일기	20 세상을 보는 창(282회) 50 만나다(26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 30 C재벌 매거진 굿데이 50 성찬의 소리
오후	12:00	00 CTS 뉴스 W 20 신앙예세이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이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제사 50 복음강단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마라톤 30 구자의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00 행복한 침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행복한 침터 충일교회 박상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율포원(680회)	30 성지가 좋다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원더풀우먼	00 GOODTV 특별간중 2024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165회)	00 믿음의 리액션 40 성경 속 전제사-에피소드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류응렬 목사(와성튼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76회) 민수기 7장	00 만나 위신
	16:00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오호수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을 강해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4회) 50 맺나는 교회(27회)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위십 50 신앙예세이	00 조경민 목사의 답답담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침터 영광교회 조이엘 목사	30 2023 KGMLF	50 영혼의 양식 산위임마을(김영준)	00 강연쇼 통 50 비전메시지
	18:00	00 더위십-김성권 목사(부산대양교회) 30 위대한 유산	10 비전설교 해성교회 정영호 목사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위신	10 레디온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홍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저녁	19:00	20 [드라마] 더 초전 시즌3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00 2025 WEA 서울총회 연합개회예배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20:00	20 더위십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50 크리스천칼럼 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40 비전메시지
	21:00	0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30 말씀노트 말씀한정 50 CTS 뉴스	4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위십 <다와서 찬양해> -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77회) 고린도전서 10장 50 잘 믿고 잘 사는 법(3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50 이단사이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58회) 김기중 목사	00 예루살렘 테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5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정심	10 쟈센 프랭클린의 부흥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10 더 콜링(136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28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3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 40 리바이즈 위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아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30 다큐 더 로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로 코칭1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7회) 50 성경콜링 이것이 금급하다(69회)	00 새에덴 강단
	1:00	00 말씀대로 살라 40 내가 매일 기쁘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기독교교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스페셜(6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499회)	00 만나 U
	2:00	30 백세특강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백산로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임석웅)	00 만나 위신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50 이영훈 목사의 할렐스토리	0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맺나는 교회(2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신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육합홀 목사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대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강영 목사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66회) 출애굽기 32장 50 CBS 교회사식(102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 30 C재벌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uler's equation
Euler's equation
SK Innovation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